생매장

The Premature Burial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844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Edgar Allan Poe, "The Premature Burial" (1844)

저자

에드거 앨런 포 (Edgar Allan Poe, 1809–1849)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148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5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제들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강렬한 흥미를 끌지만, 정식 문학의 범주에 담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기도 하다. 단순히 낭만적인 이야기만을 쫓는 작가라면,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주제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 오직 진실이 지닌 엄숙함과 위엄이 그 내용을 정당화하고 뒷받침할 때만, 이러한 소재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베레지나강 도하 작전이나 리스본 대지진, 런던의 역병,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혹은 캘커타의 블랙홀에서 123명의 죄수가 질식사한 사건 같은 기록을 접할 때, 우리는 일종의 강렬한 '즐거운 고통'을 느끼며 전율한다. 하지만 우리가 전율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즉, 그 사건이 실재하는 현실이며 역사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닌 허구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혐오감을 느끼며 외면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기록된 사건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고 엄숙하기까지 한 몇 가지 재앙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이 상상력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이유는 재앙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이다. 인류가 겪어온 길고 기이한 불행의 목록 중에서, 이처럼 거대한 재앙들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고통이 응축된 개별적인 사례들을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독자에게 상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진정한 비참함, 즉 궁극적인 고통이란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에게 집중되는 법이다. 끔찍한 극도의 고통을 견뎌내는 것은 집단으로서의 인류가 아니라, 개별적인 인간 한 사람이다.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자비로운 신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살아 있는 채로 매장된다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비극임에 틀림없다. 사색을 즐기는 이라면 이러한 일이 얼마나 자주,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는 기껏해야 모호하고 희미할 뿐이다. 어디서 삶이 끝나고 어디서 죽음이 시작되는지, 누가 감히 단언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생명 활동의 모든 겉모습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멈춤은 엄밀히 말해 중단일 뿐, 영원한 종말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의 메커니즘 속에서 잠시 일어난 일시적인 정지에 불과하다. 일정 시간이 흐르면,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원리가 다시금 마법 같은 날갯짓과 신비로운 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은빛 줄은 영원히 풀린 것이 아니었으며, 황금 대접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진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사이 영혼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물론, 특정 원인이 특정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적 결론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즉, 생명 활동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해 생매장이 일어나는 사례도 때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고려를 차치하더라도, 의료계와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 이미 수많은 생매장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증거가 확실한 사례만 해도 백 가지는 즉시 열거할 수 있을 정도다.

그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 아마 내 독자 중 일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 오래되

지 않은 과거, 인근 도시인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고통스럽고도 격렬한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자 저명한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인 한 남성의 아내가 갑작스럽고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이다. 의사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녀의 병세는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랜 고통 끝에 숨을 거두었다. 아니, 최소한 죽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녀가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의심할 만한 이유조차 없었다. 그녀는 죽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전형적인 징후를 보였다. 얼굴은 흔히 죽은 이들에게서 보이듯 수척하게 움푹 들어갔고, 입술은 대리석처럼 창백했다. 눈에는 생기가 없었으며, 몸에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맥박 또한 멈춘 상태였다.

시신은 매장되지 않은 채 사흘 동안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그사이 몸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기에, 결국 장례 절차는 서둘러 치러지게 되었다.

여인은 가문의 납골당에 안치되었고, 그 후 3년 동안 그곳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3년이 지난 뒤, 석관을 새로 모시기 위해 납골당 문을 열었다. 하지만 아아, 직접 문을 열었던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얼마나 끔찍한 충격이었던가! 문이 밖으로 활짝 열리는 순간, 하얀 수의를 입은 무언가가 달그락거리며 그의 품 안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아직 삭지 않은 수의에 싸인, 아내의 유골이었다.

면밀한 조사 결과, 그녀는 매장된 지 이틀 만에 다시 깨어났음이 분명해졌다. 관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관이 선반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관이 부서지면서 그녀가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덤 안에 실수로 남겨둔 기름이 가득한 등불은 비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이는 단순히 기름이 증발해서 다 떨어진 것일 수도 있었다.

공포의 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맨 끝단에서는 관의 커다란 파편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녀는 아마도 이 파편으로 철문을 두드리며 누군가의 주의를 끌려 했던 듯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애를 쓰던 중, 그녀는 극심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거나 아마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그녀의 수의가 안쪽으로 돌출된 철제 구조물에 엉키고 말았다. 결국 그녀는 그렇게 선 채로 부패해 갔다.

1810년 프랑스에서 산 채로 매장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사실이 허구보다 훨씬 더 기이하다는 말을 뒷받침할 만큼 놀라운 정황들을 담고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빅토린 라푸르카드 양으로, 명망 있는 가문 출신에 재력과 빼어난 미모까지 겸비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에게는 수많은 구혼자가 있었는데, 그중에는 파리의 가난한 문필가이자 기자였던 쥘리앵 보슈에도 있었다. 보슈에의 재능과 다정다감한 성품은 상속녀인 그녀의 눈길을 끌었고, 그녀 또한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그녀는 결국 그를 거절하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녀는 은행가이자 저명한 외교관인 르넬 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후, 이 신사는 아내를 방치했고 어쩌

면 더욱 노골적으로 학대하기까지 했다. 그와 함께 비참한 세월을 보낸 그녀는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적어도 그녀의 상태는 죽음과 너무나 흡사하여, 그녀를 본 모든 이가 죽었다고 믿을 정도였다. 그녀는 가족묘가 아닌, 고향 마을의 평범한 무덤에 묻혔다.

절망에 빠진 보슈에는 깊은 애정의 기억을 가슴에 품은 채, 시신을 파헤쳐 그녀의 풍성한 머리카락이라도 간직하겠다는 낭만적이고도 처절한 목적을 품고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방의 마을로 향했다. 마침내 그는 무덤에 도착했다. 자정이 되자 그는 관을 파헤쳐 열었다.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잘라내려던 찰나, 사랑하는 여인의 눈이 번쩍 떠지며 그의 움직임을 멈춰 세웠다. 사실 그녀는 산 채로 매장당했던 것이다.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기에, 죽음으로 오인되었던 혼수상태에서 그녀는 연인의 손길에 깨어났다. 보슈에는 정신없이 그녀를 업고 마을에 있는 자신의 숙소로 데려갔다. 그는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담긴 처방에 따라 강력한 회복제들을 사용했다. 결국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이를 알아보고, 서서히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그의 곁에 머물렀다. 여인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 마지막 사랑의 교훈은 그녀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보슈에에게 주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숨긴 채, 연인과 함께 미국으로 도망쳤다.

20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프랑스로 돌아왔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모습이 너무 변했기에 지인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 첫 만남에서 르넬 씨는 실제로 아내

를 알아보고 자신의 아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 주장에 맞서 저항했고, 법정은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특수한 상황과 오랜 세월의 경과를 고려할 때, 남편의 권한은 도덕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소멸되었다고 판결했다.

권위와 가치를 두루 갖춘 라이프치히의 정기 간행물, 『외과학 저널(Chirurgical Journal)』의 최근 호에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다. 미국의 어느 서점 주인이 이 잡지를 번역하여 다시 출간한다면 참으로 유익할 것이다.

거구의 체격에 아주 건강한 체질을 가진 한 포병 장교가 있었다. 그는 통제 불능 상태인 말에서 떨어지면서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그 즉시 의식을 잃고 말았다. 두개골에 약간의 골절이 있었으나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었다. 머리에 구멍을 내는 천공술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 사혈을 비롯해 통상적인 여러 치료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상태는 점차 악화되어 점점 더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들었고, 결국 그는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날씨는 따뜻했다. 그는 공설 묘지 중 한 곳에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서둘러 매장되었다. 장례식은 목요일에 치러졌다. 그다음 일요일, 평소와 다름없이 묘지에는 많은 방문객이 몰려들었다. 정오 무렵, 한 농부가 한 장교의 무덤 위에 앉아 있다가 땅이 요동치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외치면서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마치 무덤 아래에서 누군가 몸부림을 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의 주장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농부가 보

이는 명백한 공포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굽히지 않는 완고함에 결국 군중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급히 삽을 구해왔다. 수치스러울 정도로 얕게 파여 있던 무덤은 몇 분 만에 파헤쳐졌고, 이내 그 안에 있던 이의 머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겉보기에 죽은 상태였다. 하지만 관 안에서 몸을 거의 곧게 세운 채 앉아 있었으며, 격렬한 몸부림 끝에 관 뚜껑을 부분적으로 들어 올린 상태였다.

그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비록 질식 상태였으나, 아직 살아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몇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아는 얼굴들을 알아보고는, 띄엄띄엄 끊긴 말로 무덤 속에서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간신히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의식을 잃기 전까지 매장된 상태로 한 시간 넘게 살아 있었음이 분명했다. 무덤은 매우 투과성이 높은 흙으로 대충 헐겁게 채워져 있었기에, 그 틈으로 공기가 어느 정도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었고, 자신도 소리를 내어 존재를 알리려 애썼다. 그는 묘지 안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에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신이 들자마자 그는 자신이 처한 끔찍하고도 두려운 상황을 온몸으로 실감해야 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 환자는 경과가 좋았고 곧 완쾌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의학 실험이라는 이름의 돌팔이 수술에 희생되고 말았다. 갈바

니 전지가 환자에게 적용되었는데, 그 순간 환자는 가끔씩 나타나기도 하는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며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갈바니 전지 이야기가 나오니, 아주 유명하고도 기이한 사건 하나가 떠오른다. 갈바니 전지의 작용 덕분에 이틀 동안이나 매장되어 있던 런던의 한 젊은 변호사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다. 이 일은 1831년에 일어났는데, 당시 이 사건이 화제로 오르내리는 곳마다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환자 에드워드 스테이플턴 씨는 발진티푸스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다만 당시 담당 의사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 기이한 증상들이 동반되었다. 그가 사망했을 때, 지인들에게 사후 부검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전달되었으나 그들은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이런 거절이 있을 때마다 흔히 그렇듯, 의사들은 사체를 몰래 파내어 사적인 공간에서 여유롭게 해부하기로 결심했다. 런던에 흔히 널려 있는 시체 도굴꾼 집단 중 한 곳과 손을 잡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밤, 8피트 깊이의 무덤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졌던 시신이 파헤쳐졌고, 그 시신은 어느 개인 병원의 검사실로 옮겨졌다.

복부에 어느 정도 절개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생생해 보이자, 전지를 써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실험을 거듭할수록 예상했던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만 한두 차례, 경련이 일어날 때 평소보다 유난히 생생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을 제외하면, 그 반응들은 여느 경우와 다를 바 없었다.

시간이 늦어졌다. 곧 동이 틀 무렵이었기에, 결국 지체 없이 해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학생이 자신의 가설을 확인하고 싶다며 유독 고집을 부렸다. 그는 대흉근 중 한 곳에 전지를 연결해 보겠다고 주장했다. 학생은 근육에 거칠게 칼금을 긋고 서둘러 전선을 갖다 대었다. 그 순간, 환자가 움직였다. 경련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다급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해부대 위에서 일어나 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그러고는 몇 초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윽고 입을 열어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분명 단어들이 흘러나왔고 음절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들렸다. 말을 마친 그는 바닥으로 무겁게 쓰러졌다.

잠시 동안 모두가 경외감에 사로잡혀 얼어붙었다. 하지만 사건의 긴박함 덕분에 이들은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스테이플턴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으나, 살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에테르를 투여하자 그는 의식을 회복했고, 건강도 빠르게 되찾아 친구들의 곁으로 돌아왔다. 다만 친구들에게는 그가 다시 쓰러질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일절 알리지 않았다.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친구들이 느꼈을 경이로움과 환희 섞인 놀라움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가장 전율 돋는 기이함은 S. 씨 본인의 증언에 담겨 있다. 그는 단 한 순간도 의식을 완전히 잃은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의사들이 사망 판정을 내린 순간부터 병원 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멍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부실이라는 장소를 알

아차린 그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살아 있다"라고 필사적으로 내뱉으려 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말을 아끼겠다. 생매장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굳이 더 많은 사례를 나열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사건의 특성상 우리가 이런 일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생매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든 묘지를 크게 파헤칠 때면, 가장 끔찍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자세의 해골이 거의 예외 없이 발견된다.

의심스러운 상황도 무섭지만, 그 뒤에 닥칠 운명은 더욱 공포스럽다. 죽기도 전에 매장당하는 것만큼 육체와 정신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사건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숨이 막혀오는 폐의 압박감, 축축한 흙에서 올라오는 숨 막히는 악취, 몸에 달라붙는 수의, 좁은 관이 주는 뻣뻣한 압박, 그리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까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바다와 같은 정적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정복자 벌레'의 존재까지.

그 와중에 머리 위에는 흙과 풀이 덮여 있다는 생각, 우리의 운명을 알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달려와 구해줄 소중한 친구들의 기억, 그리고 결코 그들에게 우리의 처지를 알릴 수 없다는 자각이 뒤섞인다. 우

리가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이 진짜 죽은 자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직 고동치고 있는 심장 속으로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공포가 밀려든다. 아무리 대담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공포 앞에서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지상에서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으며, 저 밑바닥 지옥에서도 이 절반만큼이라도 끔찍한 꿈은 꾸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 주제를 다룬 모든 이야기는 깊은 흥미를 끈다. 다만 그 흥미는 주제 자체가 지닌 신성한 경외심 때문에, 이야기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아주 특별하고도 적절하게 작용한다.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겪은, 나의 생생하고도 확실한 경험담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의사들이 명확한 명칭을 정하지 못해 '강직성 혼수(catalepsy)'라고 부르기로 합의한 기이한 질환을 앓아왔다. 이 병의 직접적인 원인과 소인, 심지어 정확한 진단법조차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큼은 충분히 잘 알려져 있다.

증상의 변화는 주로 그 정도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어떤 때는 환자가 하루,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극도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환자는 의식을 잃고 겉보기에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심장 박동은 여전히 희미하게 느껴지며, 체온도 어느 정도 남아 있다. 뺨 중앙에는 옅은 혈색이 감돌고, 입술에 거울을 갖다 대면 폐가 느리고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어떤 때는 이 혼수상태가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이때는 아무리 면밀히 관찰하고 엄격한 의학적 검사를 거쳐도, 환자의 상태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죽음을 구분할 실질적인 차이점을 찾아낼 수 없다. 대개 이런 환자들이 생매장되는 불상사를 면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전에 강직성 혼수를 앓았다는 사실을 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무엇보다 시신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다행히도 병세는 서서히 진행된다. 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뚜렷하지만, 그 양상이 명확하다. 발작이 거듭될수록 증상은 점점 더 분명해지며, 지속 시간 또한 이전보다 길어진다. 바로 이 점이 생매장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큰 안전장치다. 만약 불운하게도 첫 발작부터 가끔씩 나타나는 극단적인 상태에 빠지는 환자가 있다면, 그는 거의 필연적으로 산 채로 무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내 사례도 의학 서적에 나오는 증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때때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나는 조금씩 의식을 잃어가는 반혼수 상태나 실신 직전의 상태로 빠져들곤 했다. 그런 상태가 되면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으며, 엄밀히 말해 사고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과 침대 곁을 지키는 이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을 멍하고 무기력하게 느낄 뿐이었다. 그러다 병의 고비가 찾아오면, 나는 갑작스럽게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며 깨어났다.

반면, 어떤 때는 병세가 급격하고 격렬하게 들이닥치기도 했다.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몸이 감각을 잃으며, 한기가 돌고 어지러워지더니

곧바로 쓰러져 버리는 식이었다. 그렇게 되면 몇 주 동안 모든 것이 공허하고 캄캄하며 정적만이 감돌았다. 우주는 그저 거대한 '무(無)'가 되어버렸다. 그 어떤 존재도,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소멸의 상태였다.

다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찾아온 발작 뒤에 깨어날 때는 그 속도가 완만했다. 발작이 급격했던 만큼, 의식을 되찾는 과정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었다. 마치 길고 쓸쓸한 겨울밤을 거리에서 헤매는, 의지할 곳도 집도 없는 부랑자에게 새벽이 밝아오듯, 내 영혼의 빛도 아주 더디게, 아주 고단하게, 그리고 아주 반갑게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황홀경에 빠지는 경향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그 한 가지 고질병이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도 전혀 들지 않았다. 다만 평소 수면 습관이 조금 특이하다는 점을 굳이 따지자면, 그 질병이 새로 불러일으킨 증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면 나는 결코 즉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깨어난 뒤에도 한동안은 늘 극심한 혼란과 당혹감 속에 머물러야 했다.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는데, 특히 기억력만큼은 완전히 작동을 멈춘 듯했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 중 육체적인 아픔은 없었다. 하지만 정신적인 괴로움만큼은 끝이 없었다. 내 상상력은 시체 안치소처럼 음산해졌고, 입에서는 자꾸만 “벌레와 무덤, 그리고 묘비명” 같은 말들이 흘러나왔다. 나는 죽음에 대한 망상에 빠져들었고, 생매장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끊임없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나를 짓누르는 그 끔찍한 위험

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를 괴롭혔다. 전자가 정신적인 고문이었다면, 후자는 그야말로 극에 달한 고통이었다.

지상에 엄습하는 칠흑 같은 어둠을 마주할 때면, 온갖 공포스러운 생각들이 몰려와 나는 몸을 떨었다. 마치 장례식용 마차에 달린 깃털 장식이 파르르 떨리듯 몸을 떨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도저히 잠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나는 간신히 잠을 청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무덤의 주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쳐졌기 때문이다. 마침내 잠에 빠져들 때조차 그것은 환영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에 불과했다. 그 환영의 세계 위에는 거대하고 검은 날개를 펼친 채, 죽음이라는 단 하나의 묘지 같은 관념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맴돌고 있었다.

꿈속에서 나를 짓누르던 수많은 우울한 환상 중, 기록으로 남길 만한 장면은 단 하나뿐이다. 나는 평소보다 훨씬 길고 깊은 강직성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차가운 손길이 내 이마에 닿더니, 조급하게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일어나!"

나는 몸을 곧게 세우고 앉았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나를 깨운 이의 형체조차 보이지 않았다. 내가 언제부터 혼수상태에 빠졌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누워 있었는지조차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며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때 차가운 손 하나가 내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더니 신경질적으로 흔들어댔다. 그러자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일어나라! 내가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서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내가 다그치듯 물었다.

"내가 머무는 곳에서는 내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다네." 목소리가 슬프게 대답했다. "나는 한때 필멸의 존재였으나, 이제는 악귀가 되었지. 한때는 무자비했으나, 지금은 가련한 처지라네. 자네도 내가 전율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겠지. 말하는 동안 이가 맞부딪히고 있지만, 이건 끝없는 밤의 냉기 때문이 아니라네. 이 끔찍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때문이지.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잠들 수 있는가? 나는 이 거대한 고통의 비명 때문에 도저히 쉴 수가 없네.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들은 차마 견딜 수가 없단 말일세. 어서 일어나게! 나와 함께 저 바깥의 밤으로 가세. 내가 자네에게 무덤의 실체를 보여주겠네. 이 비극적인 광경이 보이지 않는가? 자, 보게나!"

나는 눈을 떴다. 여전히 내 손목을 움켜쥐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형상 때문에, 인류의 모든 무덤이 일제히 열려 있었다. 무덤마다 부패가 만들어낸 희미한 인광이 흘러나왔다. 그 빛 덕분에 나는 무덤의 가장 깊숙한 구석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벌레와 함께 수의에 싸인 시신들이 슬프고도 엄숙한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아아, 비극적이게도 진정으로 잠든 자들은 전혀 잠들지 못한 자들에 비하면 수백만 명이나 적었다. 그곳에는 가냘픈 몸부림이 있었고, 전반적인 슬픈 동요가 일고 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구덩이 밑바닥에서는 매장된 이들의 옷가지가 스치는 쓸쓸한 바스락거림이 들려왔다. 평온하게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처음

매장되었을 때의 굳어 있고 불안정한 자세에서 어느 정도씩 몸을 뒤척인 것을 나는 보았다.

내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목소리가 다시 내게 말을 건넸다.

"그것은—아! 정말이지 너무나도 가련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대답할 말을 찾기도 전에, 그 형체는 내 손목을 붙잡던 손을 놓아버렸다. 인광의 빛은 사그라들었고, 무덤들은 갑작스럽고 격렬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무덤들 사이로 절망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오, 신이시여, 정말이지 너무나도 가련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밤마다 찾아오는 이런 환상들은 깨어 있는 시간까지 이어지며 나를 무섭게 짓눌렀다. 신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나는 끊임없는 공포의 희생양이 되었다. 집 밖을 나서서 말을 타거나 걷는 일, 혹은 그 어떤 운동조차 망설여졌다. 사실 나는 내 상태를 아는 이들 곁을 잠시라도 벗어나는 것이 두려웠다. 혹여 평소처럼 강직증 발작이 찾아왔을 때, 내 진짜 상태를 확인하기도 전에 그대로 매장당할까 봐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다.

가까운 친구들의 보살핌과 충성심조차 의심스러웠다. 평소보다 조금만 더 길게 혼수상태가 지속되어도, 그들이 나를 가망 없는 상태로 간주해 버릴까 봐 두려웠다. 심지어 내가 그들에게 많은 폐를 끼치고 있기에, 발작이 너무 길어지면 그들이 차라리 나를 완전히 치워버릴 구실로 삼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친구들이 아무리 엄숙

하게 약속하며 나를 안심시키려 해도 소용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신성한 맹세를 요구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신이 부패하여 더 이상 보존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나를 매장하지 않겠노라고 말이다. 하지만 설령 그런 약속을 받아낸다 해도, 죽음의 공포에 질린 내 마음은 이성적인 판단도, 그 어떤 위로도 받아들이지 못할 터였다.

나는 치밀한 예방책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가족 묘실을 개조하여 안쪽에서 쉽게 열 수 있도록 만들었다. 무덤 깊숙이 뻗어 있는 긴 지렛대를 살짝만 누르면 철제 문이 덜컥 열리도록 설계했다. 공기와 빛이 자유롭게 통하도록 장치를 마련했고, 관 바로 옆에는 음식과 물을 쉽게 꺼낼 수 있는 용기들도 두었다. 내가 안치될 관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패드로 안감을 댔으며, 묘실 문과 같은 원리로 만든 뚜껑을 달았다. 여기에 스프링 장치를 추가하여, 몸이 아주 미세하게만 움직여도 뚜껑이 열리도록 만들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무덤 천장에는 커다란 종을 매달았다. 종의 줄은 관에 뚫린 구멍을 통과해 시신의 손 중 하나에 묶이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아아, 인간의 운명을 막으려는 경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토록 정교하게 준비한 안전장치들조차, 이 끔찍한 고통을 겪을 운명에 처한 가련한 자를 산 채로 매장당하는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구해주지는 못했다.

이전에도 종종 그랬듯, 마침내 어떤 시기가 찾아왔다. 완전한 무의식의 상태에서 벗어나, 존재한다는 희미하고도 막연한 감각이 처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정신의 여명이 밝아오는 과정은 거북

이의 걸음처럼 느리고 더디게 진행되었다. 무기력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둔탁한 통증을 그저 무심하게 견뎌낼 뿐이었다. 아무런 근심도, 희망도, 의지도 없었다.

그러다 긴 시간이 흐른 뒤,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한참이 더 지나자 팔다리 끝이 따끔거리고 저릿한 감각이 느껴졌다. 뒤이어 영원할 것만 같은 즐거운 정적의 시간이 찾아왔다. 깨어나려는 감각들이 간신히 사고의 형태로 다듬어지는 동안 말이다. 그러다 다시 잠시 무(無)의 상태로 가라앉았다가, 돌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마침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와 동시에 치명적이고도 정체모를 공포가 전기 충격처럼 엄습했다. 그 공포는 관자놀이에서 심장으로 피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제야 비로소 무언가를 생각하려는 첫 번째 의지가 생겨났다. 기억해 내려는 첫 번째 시도도 시작되었다. 아주 짧고 찰나적인 성공이었다. 이윽고 기억이 제 자리를 되찾으면서, 나는 어느 정도 내 상태를 자각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내가 평범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님을 느꼈다. 내가 강직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도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듯, 떨고 있는 내 영혼은 단 하나의 참혹한 위험, 즉 유령처럼 나를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맴도는 그 하나의 생각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다.

이런 망상이 나를 사로잡은 뒤, 나는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다. 왜 그랬을까? 움직일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운명이 어떠한지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감히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다는 사실을 속삭이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 어떤 비참함도 불러일으키지 못할 절망, 오직 그 절망만이 긴 망설임 끝에 나를 채찍질했다. 나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을 떴지만, 사방은 어둠뿐이었다. 모든 것이 암흑이었다. 발작은 끝났음을 직감했다. 내 병세의 고비도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시력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은 온통 칠흑 같았다.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밤의, 그 강렬하고도 완전한 암흑 속에 갇힌 듯했다.

비명을 지르려 애썼다. 입술과 바짝 마른 혀가 경련하듯 맞물려 움직였으나,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폐는 마치 거대한 산이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칠 때마다, 폐는 심장과 함께 격렬하게 요동치며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소리를 지르려 애쓰며 턱을 움직여 보았지만, 턱은 죽은 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꽁꽁 묶여 있었다. 몸 아래로는 딱딱한 무언가가 느껴졌고, 옆구리 역시 비슷한 물체에 강하게 압박당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감히 몸을 움직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손목을 교차한 채 길게 뻗어 있던 두 팔을 거칠게 치켜올렸다. 팔이 부딪힌 곳은 딱딱한 나무였다. 얼굴에서 고작 6인치도 채 떨어지지 않은 높이에 나무 판자가 놓여 있었다. 이제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관 속에 누워 있었다.

끝도 없는 비극 속에서, 한 줄기 달콤한 희망이 찾아왔다. 내가 미리 준비해 둔 예방책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몸을 뒤틀며 경련하듯 힘을 써서 관 뚜껑을 열려 애썼다. 하지만 뚜껑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손목을 더듬어 종줄을 찾으려 했으나,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나를 위로하던 희망은 영영 달아나 버렸고, 그보다 더 가혹한 절망이 승리자처럼 나를 짓눌렀다. 내가 그토록 공들여 준비했던 완충재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젖은 흙에서 나는 특유의 강렬한 냄새가 갑자기 코끝을 찔렀다.

결론은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지금 지하 납골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집을 떠나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언제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혼수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마치 개처럼 매장해 버렸다. 평범한 관에 못이 박힌 채, 이름 없는 무덤 속 깊은 곳으로, 영원히, 아주 깊숙이 처박아 버린 것이다.

이 끔찍한 확신이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자, 나는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려 애썼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 끝에 마침내 성공했다. 길고 거칠며 끊이지 않는, 고통에 찬 비명이 지하 세계의 밤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이봐요! 거기 누구 없소!" 거친 목소리가 대답하며 들려왔다.

"도대체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두 번째 인물이 외쳤다.

"그만 좀 나가라고!" 세 번째 인물이 소리쳤다.

"그렇게 산짐승처럼 울어대는 게 대체 무슨 뜻이야?"

네 번째 인물이 물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험상궂게 생긴 무리에게 붙잡힌 나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친 손길에 몇 분 동안이나 사정없이 흔들려야 했다. 그들이 나를 잠에서 깨운 것은 아니었다. 비명을 지를 당시 나는 이미 정신이 말짱했으니까. 다만 그 소동 덕분에 끊겼던 기억이 비로소 온전하게 되살아났을 뿐이다.

이 사건은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인근에서 일어났다. 나는 친구와 함께 사냥을 하러 제임스강 하류를 따라 몇 마일쯤 내려가 있었다. 밤이 다가오자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우리를 덮쳤다. 강물에 닻을 내리고 정원용 배양토를 가득 실은 작은 슬루프선 한 척이 있었는데, 그 배의 선실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밤을 지내기로 하고 최대한 몸을 의탁했다.

나는 배 안에 마련된 단 두 개의 침상 중 하나에서 잠을 청했다. 20톤이나 60톤 정도 되는 슬루프선의 침상이 어떠할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내가 누운 곳에는 침구조차 전혀 없었다. 폭이 고작 18인치에 불과했다. 바닥에서 머리 위 갑판까지의 높이 또한 폭과 똑같았다. 그 좁은 틈에 몸을 구겨 넣는 일은 무척이나 고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내가 본 모든 광경은 꿈도, 악몽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평소의 사고방식,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뒤 한동안 정신을 차리거나 특히 기억을 되살리는 데 애를 먹었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된 실재였다.

나를 흔들어 깨운 사람들은 슬루프선의 선원들과 짐을 내리기 위해 고용된 인부들이었다. 흙더미에서 풍겨 나오는 흙내음이 코끝을 찔렀다. 턱을 감싸고 있던 붕대는 평소 쓰던 밤모자가 없어서 머리에 둘러 매었던 실크 손수건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내가 겪은 고통은 실제 매장되었을 때와 다름없을 만큼 분명히 참혹했다. 그 공포는 무시무시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그러나 악에서 선이 태어나는 법일까.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던 나머지, 내 영혼에는 필연적인 거부감이 생겨났다.

내 정신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성격 또한 변해갔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격렬하게 운동을 했다. 하늘 아래 펼쳐진 자유로운 공기를 마셨다. 죽음이 아닌 다른 주제들에 대해 생각했다. 의학 서적들을 멀리했고, 부칸(Buchan)의 책은 불태워 버렸다. '밤의 사색(Night Thoughts)' 같은 책도, 공동묘지에 관한 허튼소리도, 이 이야기처럼 겁을 주는 괴담도 더는 읽지 않았다. 요컨대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 기억에 남을 밤 이후로, 나는 시신 안치소에 대한 공포를 영원히 떨쳐버렸다. 그리고 그 공포와 함께 나의 강직증(cataleptic disorder)도 사라졌다. 어쩌면 그 공포는 강직증의 결과라기보다, 오히려 그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성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냉철한 이조차도, 때로는 슬픔에 잠긴 인류의 세계가 마치 지옥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인간의 상상력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모든 동굴을 탐험해도 되는 카라시스

(Carathis) 같은 존재가 아니다. 아아, 무덤에서 들려오는 그 섬뜩한 공포의 군단이 결코 모두 환상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아프라시아브가 악마들과 동행하며 옥수스강을 따라 내려갔던 것처럼, 그 공포 역시 잠들게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들이 잠들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멸하고 말 것이다.